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30 호 현대불교 21
2021년 3월 3일(음 1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 공한데서 나오는거 공한데다 다시 말려 놓고 믿고 물러서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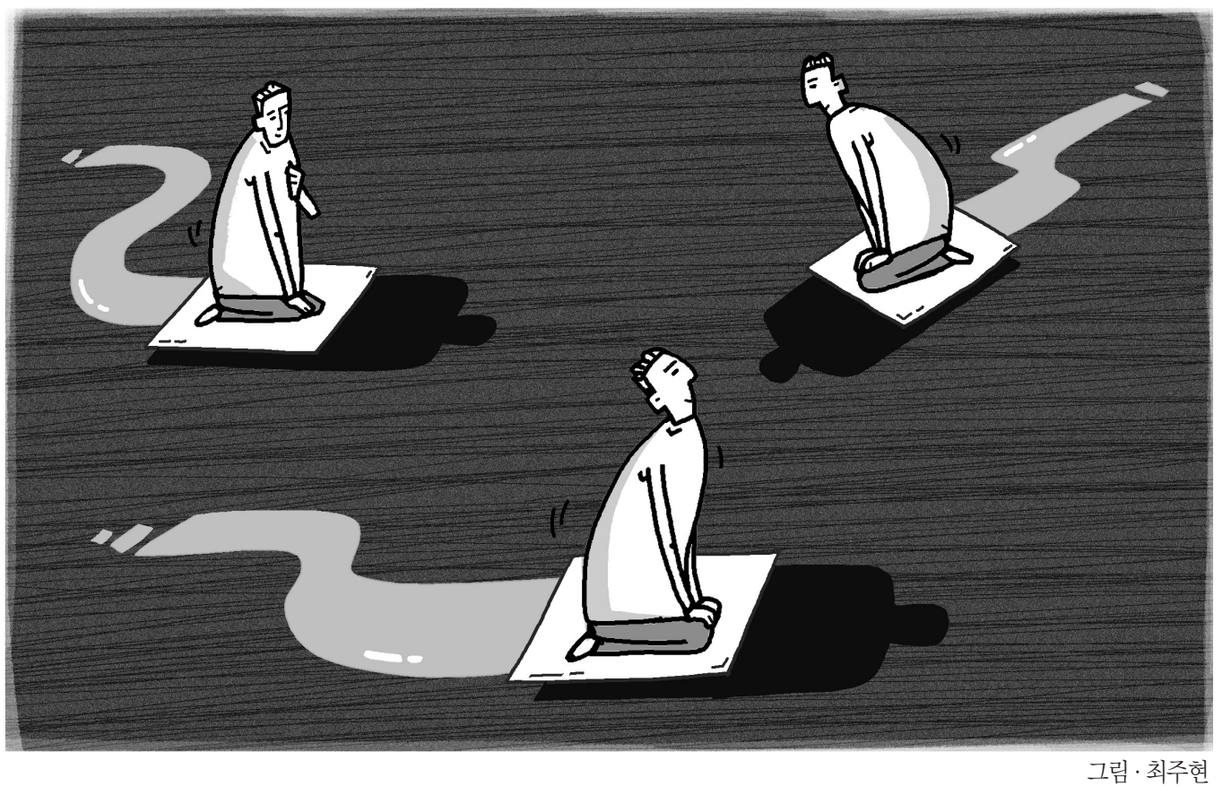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 맨 마지막에 그 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루는 겁니까? 누가 이루냐니까요? 누가 이루는 겁니까? (잠시 사이) 왜 말들을 못 해요? 누가 이루는 겁니까?

그전에 대만에 갔었습니다, 불광사라는 데를. 아침 예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당에 부처님이 삼 불이 놓여 있으면서도 하여튼 벽 사이로 조그만 부처님들이 수만 개가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벽 사이에 이렇게 틈나는 대로, 옛날 문창에 해 놓듯 나무로다가 그렇게 해 놓고 그 안에다가 다 모셨습니다. 그러니 뭐, 빌 틈도 없죠, 부처님이.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만 불이 다 부처님이라면 진짜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진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부처님들 중에 말입니다. 이래도 그냥 묵묵부답일 겁니까?

**신도1(여)** 자기 마음속 아닙니까?

**큰스님** 마음속 안에 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부처는 어디 있을까요?

**신도1(여)** 그 마음이란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아닌 것을 말합니다.

**큰스님** 내가 아니라는 그 말 하는 사람의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말은 어디서 왔어요?

**신도1(여)** 공중에서.

**큰스님** 허허허. 공중에서 온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도1(여)** 분명히 말하면 제 육체 안 어디서 나오겠죠, 성대라든가 배 속에서요. 그러나 이거는 공중에서 나오는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당신 배 속에서 나오고, 당신 몸이 무너진다면 어디로 또 나올까요?

**신도1(여)** 저는 그 해답을 듣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큰스님** 예전에 사명 대사와 서산 대사가 담설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 대사는 새를 한 마리 쥐고서 "제가 이걸 놔 주겠습니까, 안 놔 주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 대사는 아무 소리 없이 나가면서 문지방에 걸쳐 서서 "내가 나가겠는가, 들어가겠는가?" 하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홍서원을 읊었는데 어떻게 해서 끊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끊는 게 옳습니까, 끊지 않는 게 옳습니까? 공에 치우쳐도 아니 되고 말입니다. 만법귀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에 치우쳐도 아니 되고 공에 안 치우쳐도 아니 되고, 무로 빠져도 아니 되고 현실주의자로 빠져도 아니 됩니다. 내가 없는데 공중에서 어디서 옵니까?

그 중심이란…, 우리가 공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오온에 같이 융합이 돼서 원형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살림살이가, 만법에 의한 이 세상살이가 당신의 그 근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생명이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자기 주인공은 여러분에게 다 각기 있으나 같이 얼크러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기에 조금 가능성이 있어야 서로 말이 되고 진담이 되고 나중에는 참, 선답이 되는데 이게 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들 하세요. 생활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 하세요.

옛날에도 한창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스님께 묻기를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인과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백 세나 여우의 몸을 받아 가지고 곡경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인과가 없습니까, 또는 있습니까? (잠시 사이) 아직도 멀었군!

그럼 여러분의 그릇대로 질문들 하세요. 우리가 사홍서원을 아침마다 하고 저녁에도 하고 사시 마지 때도 하고 항상 마음속으로도 그럭하고 평상시에도 집에서 항상 그럽니다. "끊으렵니다" 하고 말입니다. 망상 그런 거를, 모든 거를 끊고 중생을 거두렵니다, 건지렵니다, 이루오리다 하고선 외칩니다. 건지는 것도 아니고 끊는 것도 아니고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놓아야 됩니다.

그 모두를 맡겨 놓지 않는다면, 스스로서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는데 공한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어디에서 맛보렵니까? 나라는 존재를 맛을 못 보면 세상의 모든 갖가지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맛을 못 보고는. 하나에서 만법을 통하고 만법을 통하는 데서 한생각으로 들고, 들면서 또 통하고 이러는데, 한생각 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움죽거리고 자고 깨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건데 주인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웃고 즐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진법을 이루는 데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차이죠. 어떤 사람은 주인공과 자기를 둘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둘로 삼고 매달리고, 매달리는 거보다도 관하고 의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모든 걸 놓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서 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즉 말하자면 운전을 하고 가는 데에 내가 발동을 걸어야 차가 가는데 '아,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해 주니깐, 뭐….' 이렇게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장속에 금을 묻어 놓고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바깥으로 빛이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모양, 모습으로 발전이 돼서 넓힐 수가 없어. 즉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지혜가 넓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건 공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익도 없고 해로움도 밑질 것도 없지. 그러니까 편안하기는 하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항상 금을 캐내서 생산을 하고 이러듯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름이 있고 차가 있고 운전수가 있으니까 '뭐, 가자는 대로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고선 가만히 운전수는 주인이 가랄 때만 바라고 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사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이나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죠.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양면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남의 기사 노릇을 하느냐,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끄느냐 하는 겁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내가 맘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발동을 걸어서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깐 차도 자기가 곱게 끌 뿐 아니라 남의 차가 아니니까 곱게 끌고 곱게 모든 거를 깨끗이 닦고 아주 당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남의 차를 끄는 사람은 당연하게 닦아야 하지만 그건 의식적으로 이것이 남의 차라는 것을 알면서 조심조심 다루고 또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주인이 가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남한테 만날 질질 끌려다니렵니까,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자유자재하시렵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작으면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도 가난하게 해 나가. 폭이 좁고 지혜가 넓지 못해서 허공에 바늘구멍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만큼 그렇게 살림살이가 가난하죠. 물론 돈이 많고 적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쓸 데다가 못 쓰고 쓰지 못할 데다 쓰는 그런 좁은 사람이 행하는 살림살이라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푼 쓰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양 무제가 그렇게 많은 시주를 하고 또 그 나라에서 그래도 일컫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달마 대사가 공덕이 있다고 칭찬을 해 줄 줄 알고 양 무제는 "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모든 것을 참,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남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다가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양면을 두고서 하기 때문에 벌써 욕심이

☞ 22면으로 계속